

01 교회소식

평안과 행복을 주는 생명수

인체에 물이 없으면 더 이상 생명 활동을 할 수 없듯이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수인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02 생명의 말씀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께 속한 권능을 행하는 것은 그가 곧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임을 증명한다.

03 기획특집

천기를 주관하는 놀라운 역사

WCDN 부회장 황준하 박사가 태풍이 물러가고 폭우가 멎고 가뭄에 큰 비를 내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한다.

04 간증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니 행복합니다”

인터넷으로 이재록 목사 설교를 듣고 오아시스를 만난 기쁨을 얻던 중 생명의 제단을 찾아 한국에 온 박영란 교육목사 간증.

만민뉴스

제689호 2015년 6월 7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생명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희열을 느낍니다!” 전 세계 무수한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양식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운데 사진)는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으로 무수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이 생명의 말씀은 60개 언어의 다국어 신앙서적과 GCN 방송, MIS(만민국제신학교), 목회자 세미나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전해져 크리스천들과 목회자들을 비롯, 일반인들에게도 변화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며 응답과 축복이 임해 참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고 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한복음 4:13-14)

우리가 먹는 물은 마시는 그 순간 잠시 갈증을 해소해 주지만 영원히 갈증을 해소해 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물 곧 하나님 말씀은 우리 속에서 영혼을 변화시켜 영생에 이르도록 해준다.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양식 삼고 행해 나가는 사람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기쁨의 샘이 솟아난다.

우리 교회 1만여 지·협력교회 성도들 또한 이러한 기쁨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태국 치앙라이만민교회 티피깐 분습

집사(40)는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혈기 많던 제가 혈기를 버리게 됐고, 세상을 사랑하던 남편이 가정에 충실한 남편으로 변화했으며 지금은 교회에서 충성하고 있지요. 인터넷 게임에 중독됐던 아들까지 게임을 끊고 열심히 공부하니 염려 근심이 사라졌습니다.”라고 말했다.

콜롬비아만민교회 죠아나 멘데스 성도(35)는 “이재록 목사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이라는 설교를 듣고서야 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어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어 통회자복 할 수 있었고 지금은 천국 소망으로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다.

인도 첸나이만민교회 위제이 형제(18)는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받아 술, 담배를 끊고 혈기를 버리니 온 가족이 전도됐어

요. 주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대학입시에도 합격했습니다.”라고 했다.

김성애 자매(23)는 “직장으로부터 갑작스런 퇴직 통보를 받은 후 ‘온전한 십일조와 헌물’에 관한 설교를 듣게 됐어요. 십일조를 드린다고 했지만 총수입에서 드리는 온전한 십일조가 아니었음을 깨닫고 부족한 금액의 세 배를 드렸는데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라고 간증했다.

이처럼 생명의 말씀은 전 세계 만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뿐 아니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신앙을 올바르게 세워주고 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려줌으로 순종해 나가는 이마다 신속한 믿음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역자들도 이재록 목사의 깊이 있는 영적인 설교를 통해 깨어나고 있다.

얼마 전 개최된 두바이 목회자 세미나 시 ‘십자가의 도’ 말씀을 들은 존 마스라즈 목사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참석한 저희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특히 성경 구절을 인용해 명쾌하게 설명돼 놀라웠습니다.”라고 했다.

케냐 아놀드 키프로티치 목사는 “만민국 제성경대학에서 배운 말씀들이 능력이 돼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18명의 성도로 시작했는데, 현재 470명이 됐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무수한 기도와 금식을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낸 생명의 말씀이 무수한 영혼을 살리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십자가의 도’를 비롯 믿음의 분량, 천국, 지옥,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팔복, 사랑장, 창세기, 레위기, 욥기,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요한계시록 강해 등 다양한 설교는 교회 홈페이지(www.manmin.org)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사편 62:11)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2. 하나님께 속한 권능의 증거

권능이란 권세와 능력을 뜻하는 말로서, 권세란 하나님의 정하신 업위였고 영광스러운 힘을 말하며, 능력이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믿음의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권능이 주어진 사람에게는 기사와 표적이 따르며, 권능의 차원에 따라 희한한 능과 기이한 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표적(表蹟)

사람이 행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경이 눈을 뜨고 병어리가 말을 하며 들리지 않는 귀가 들리는 것은 물론, 앓은뱅이가 일어나고 짧았던 다리가 길어지며 소아마비나 뇌성마비가 온전해지는 역사 등이 이에 속하지요.

이러한 표적을 행하려면 능력 행함이 따라야 하는데, 이는 신유의 은사 즉 병 고치는 은사와는 다릅니다. 신유의 은사는 몸살, 감기, 압, 폐병 등과 같은 세상 의학으로도 치료 가능한 질병이나 균에 의한 병을 기도로 낮게 하는 것이지만, 능력 행함은 사람의 힘이나 과학, 의학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하는 사람을 통해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 행함은 은사로 주어지거나 영적인 사람의 힘과 의인의 간구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능력 행함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 성결을 이루고 불같이 기도함으로 믿음을 좇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경우입니다.

2) 기사(奇事)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로 천기를 움직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컨대, 구름을 움직인다든가, 비를 오게 하거나 멈추게 하고, 천체를 움직이는 것 등이 기사에 속합니다.

만약 해, 달, 별 등을 움직인다면 이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현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합당한 조건과 시기가 맞아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큰 권능이 있다 해도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추게 한 기사를 행하려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요.

또한 권능의 차원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때문에 아무 때나 이런 권능을 행하지 않습니다.

3) 희한한 능과 기이한 일

성경 상에서 희한한 능의 예를 들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갔습니다(행 19:11-12). 기이한 일은 모세가 애굽에서 행한 열 재앙과 예수님께서 중풍으로 꼼짝 못한 사람을 치료하신 것(눅 5:17-26)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능과 기이한 일은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얼마든지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3.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증거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은 생사를 주관하는 영역에 속합니다. 선지자 엘리야(왕상 17:17-24)와 엘리사(왕하 4:32-37), 사도 베드로(행 9:40)와 사도 바울(행 20:9-12)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지요(요 11:43-44). 또한 베드로가 저주하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혼이 떠나 죽고(행 5:1-11),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니 말라버리며(마 21:19), 엘리사가 자신을 놀린 아이들을 저주하니 암콧 돌이 나와 죽었습니다(왕하 2:23-24).

이처럼 생사에 관련된 권능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 능력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은 죽은 것을 살리는 영역에 속합니다. 죽은 것을 살리는 영역은 포괄적으로는 생사를 주관하는 영역에 속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완전히 죽은 신경이나 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 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나 귀머거리된 자를 고치신 것이 모두 죽은 신경이나 세포를 살리는 경우이지요.

셋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은 창조의 영역에 속합니다. 예컨대, 없던 뼈나 신체의 기관이 생겨나거나 짧은 신체의 부분이 늘어나는 역사 등이 무에서 유가 만들어진 경

우입니다.

엘리아 선지자를 공쾌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왕상 17:8-16), 엘리사가 축복하니 빌려 온 병마다 기름이 찬 경우(왕하 4:1-7)가 있으며, 오병이 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마 14:15-21).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한 것도(마 8:5-13) 말씀 자체가 역사되는 창조의 권능이지요. 이러한 권능은 사공을 초월해 역사됩니다.

4.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임을 증거하는 권능의 역사

이처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증거입니다. 더욱이 마음이 선하고 성결돼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은 모세나 여호수아, 엘리야,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빌립 집사, 스테판 집사 등이 이러한 권능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며(요 9:31), 하나님과 죄의 담이 있으면 아무리 구해도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시 66:18). 하물며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의 담이 있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권능을 행하는 것은 그가 곧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왔음을 믿지 않았습니까(마 12:24). 이를 안타까워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하셨지요(요 10:37-38).

어떤 사람이 권능을 행한다면 설령 사람을 보고는 믿지 못한다 해도 그 행하는 것을 보고는 믿어야 합니다. 권능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권능을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권능을 온전히 믿을 뿐만 아니라, 신속히 권능의 차원에 들어가 하나님께 속한 권능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든 어느 회사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알려주는 상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상표는 믿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증거가 있는데, 바로 권능입니다. 과연 권능이란 무엇이며 권능의 역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1.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

권능은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고유 상표와도 같아서 아무나 흉내 낼 수 없습니다. 누군가 권능을 행하고 그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권능은 언제나 그 열매가 선이고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꾸민 권능은 한계가 있고, 그 열매가 악하며 사람을 미혹해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개인의 유익을 취하거나 자신이 영광을 받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권능은 그 열매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원수 마귀 사단은 사람을 미혹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권능, 즉 인류의 생사화복과 역사를 주관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역사는 결코 흉내 낼 수 없습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천기를 주관하는 기사(奇事)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은 인체에 작용해 치료 역사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천기를 좌우하기도 한다.

큰 광풍이 일어나 배에 물결이 가득하게 됐 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큰 물결이 잔잔해졌다(막 4:37~39).

엘리아의 간구를 통해 비가 3년 반 동안 오지 않기도 하고, 다시 기도하므로 큰 비가 오기도 했다(왕상 17~18장; 약 5:16~18).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떠할까?

태풍, 허리케인 등 재난의 위기에서 벗어나다



마닐라 기자회견에서 이재록 목사가 담대히 믿음으로 고백한 후 경로가 갑자기 바뀐 태풍 레기타.

▶ 2001년 9월, 필리핀 수도 마닐라 루네타 공원에서 열린 연합대성회 직전 두 개의 태풍이 연이어 필리핀 주위를 맴돌았다. 그러나 강사 이재록 목사는 마닐라 기자회견에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 성회가 태풍으로 인해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을 담대히 고백했고, 결국 비가 내리지 않는 시원한 날씨 속에 성공적인 성회를 치를 수 있었다.

▶ 2011년 8월말, 허리케인 아이린이 미국 동부 연안을 위협하는 가운데 28일 일요일에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뉴욕 시와 뉴저지, 워싱턴 DC의 만민 지교회 목회자들은 서울에 있는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를 요청했다.

이에 이재록 목사는 금요일 새벽 3시 5분경, 뉴욕 시각 26일 금요일 오후 2시 5분경에 허리케인이 소멸되도록 기도했다.

그 당시 뉴욕에서는 이재록 목사가 기도하기 불과 몇 분 전인 금요일 오후 2시에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뉴욕 유사 이래 최초의 의무 대피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재록 목사가 허리케인 소멸을 기도한 후 허리케인은 약화되기 시작했고, 일요일에는 뉴욕 지역에 이르기 전 열대성 폭풍으로 소멸됐다.



이재록 목사의 기도 후 약화되고 있는 허리케인 아이린.



홍수의 재난을 우려한 호주 아이린 박사가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한 (1. 11) 기도받은 결과 수위는 우려한 것보다 훨씬 낮았다(1. 13 BBC 보도).

▶ 2011년 1월, 호주 브리즈번 강이 범람함으로 브리즈번 시가지 일부가 물에 잠겼다.

밀물과 댐 방류가 겹치는 24시간 내에 심각한 재난이 예상되므로 WCDN 호주 지부에서는 1월 11일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를 요청했다.

그 결과, 13일자 BBC 등에서는 홍수의 수위가 두려워했던 것보다 훨씬 낮았다고 보도했다.

다. 이에 이재록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가 그치기를 기도하며 담대히 “비가 멎으라!” 명했다. 그러자 곧바로 먹장구름이 흩어지면서 비가 그쳤고, 파란 하늘이 열리고 별들이 나타났다.

▶ 2002년 10월, 인도 타밀라루 주 첸나이 시는 3년간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9개월간은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10월 8일 밤 ‘이재록 목사 초청 인도 연합대성회’ 강사 이재록 목사가 첸나이 공항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니 굵은 빗줄기가 내리기 시작했다.

당시 첸나이 시는 이웃 카르나타카 주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었는데, 물을 줄 수 없다고 해 10월 9일, 주 전체가 중앙정부에 항의하는 파업을 일으키기로 돼 있었다. 그런데 이재록 목사가 인도에 머물던 한 주간 동안 날마다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것이다.

성회 셋째 날인 10월 12일에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이재록 목사가 성회 장소인 마리나 해변에서 설교를 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큰 바람과 거센 빗줄기가 몰아치고 천둥 번개까지 친 것이다. 이재록 목사는 “요동하지 마십시오! 이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내보일 때 하나님은 더 크게 크게 역사하십니다!” 라고 외치며 우산도 쓰지 않고 폭우 속에 설교를 계속했다.

그리고 간절히 환자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성회 참석자들과 TV 생중계를 시청하는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이 깊이 새겨졌다.

이로 인해 그 다음 날인 10월 13일 성회 마지막 날에는 마리나 해변에 약 150만 명이라는 초유의 인파가 모였다. 경찰은 4일 동안 연인원 3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아무런 사고 없이 평화적 기독교 집회를 가졌다고 정부에 보고했다.

▶ 우리는 천지만물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셨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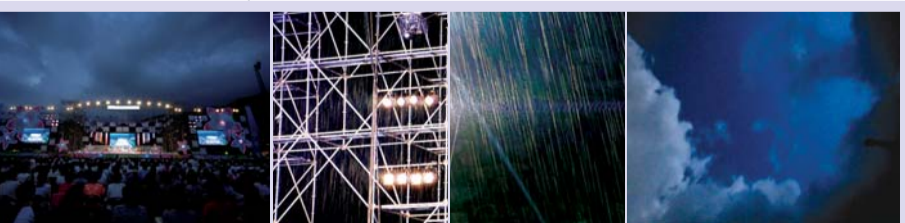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말씀하고 있다. 맑고 웅장한 아름다운 빛의 형태로 근본의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셨으리라. 만민중앙교회에서는 근본의 빛을 느낄 수 있도록 성도들의 휴대폰에 오로라 빛의 형상들이 찍혀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망이 날로 더하고 있다. 신속히 믿음이 성장해서 아름다운 영의 마음을 이루고자 고무되고 있는 것이다.



연인원 300만 명 이상이 모인 ‘인도 연합대성회’는 3년간의 극심한 가뭄을 해결하고 무수한 영혼이 치료받고 개종해 구원에 이르는 권능의 대폭발의 역사가 나타났다.

폭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 2013년 8월, 만민 하계수련회 시 이재록 목사의 교육 시간이 저녁 7시 30분에 야외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7시 40분경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이내 굵은 비로 바뀌어 세차게 쏟아졌



글_ 황준하 박사 (WCDN 부회장)

GCN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5.06.07~06.13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하나님을 만나려면
- 창세기 강해 78-82
- 요한계시록 강해 76
- 십자가의 도 1-5
- 응답과 축복의 하나님 4
- 믿음을 천명하시니 11-15
-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1-2

GCN TV설교

- 온전한 심일조와 한물 5 (이수진 목사)
- 합당한 말 (이미영 목사)
- 생명과 평안 (이미영 목사)
- 영의 세계 37 (이희선 목사)
-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 (신동초 목사)
- 열 재앙 2 (정규영 목사)
- 새로운 피조물 (주현권 목사)

예능 프로그램

- 알콩달콩 어여쁜 율동 37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14
- English 2
- 즐거운 요리 6
- 흥겨운 소리 9
- 모두 드려요 29

해외성회 프로그램

- 러시아 연합대성회 3
- 회상 13

GCN HD 채널
kt olleh tv 882번



“가장 성경적인 교회, 가장 닦고 싶은 목회자를 만나 매우 행복합니다”

남편 경대현 선교사와 함께한 박영란 교육목사

선교의 꿈을 안고 건너간 미국 영적 갈급함으로 사역의 한계에 부딪혔으나

저는 부유한 가정환경에서 태어나 성장했지만, 청소년기에 영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도를 받아 주님을 영접한 후에는 저를 괴롭히던 많은 귀신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는 꿈을 꾸게 됐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지요.

이처럼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났기에 저는 유명한 기도원을 찾아다니며 불같이 기도하던 중, 성령의 감동함 속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비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1996년, 부모님의 후원으로 미국 유학을 갈 수 있었습니다. 버클리 연합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2008년에 미국 초교과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뒤 교육목사로서 7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는 게이와 레즈비언들만 모여 사는 도시가 따로 있을 정도로 영적 싸움이 치열한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는 독일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맥주를 즐겨 드시고 노래방에서 교인들 앞에서 세상 노래를 멋들어지게 부르시는 분이였지요.

저는 날이 갈수록 영적 갈급함을 느끼게 됐고, 제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영적인 멘토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러한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저는 인터넷을 통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

그러던 중, 우연히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마치 목은 때를 민 듯한 영적인 개운함을 느꼈지요.

저는 2013년 12월부터 남편 경대현 선교사와 함께 매일 인터넷을 통해 목사님의 설교를 한 편씩 들으며 회개했고, 남편은 이재록 목사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은 꿈에 이재록 목사님께서 뺨뺨 떨어진 자신의 넥타이를 바로 고쳐 주시며 “웃은 깨끗이 입어야죠.”라고 말씀하셨다면서 신기해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남편과 함께 집 주위를 산책하던 중 달 주변을 동그랗게 두른 원형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신기한 광경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가 참이라는 사인을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또한 ‘2002 이재록 목사 초청 인도 연합대성회’를 인터넷 동영상으로 보게 됐습니다. 연인원 300만 명이 모인 성회에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며 이러한 일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요.

미국에서 15년간 절에 다니시던 시부모님도 〈십자가의 도〉 설교를 통해 개종하고

저희는 하나님 말씀을 확증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전하기 위해 시부모님이 계시는 콜로라도 주에 갔습니다.

불교신자인 시부모님에게 이재록 목사님의 ‘십자가의 도’ 시리즈 설교를 인터넷 동영상으로 보여 드리며 함께 예배를 드렸지요. 설교를 듣던 중, 시어머님은 화상 등 갖가지 질병이 치료된 사례를 보여 주는 장면이 나오자 ‘세상에 이런 목사님이 계시는구나.’ 하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다섯 번째 예배드리는 날에는 시어머님이 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용인즉 늘 섬기던 불상 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두 쪽으로 썩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뒤 실제로 시부모님이 15년간 다니시던 절이 망해 다 큰 주로 이사하게 됐고, 결국 시부모님은 불경과 염주를 불에 태우고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선교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안식년을 맞아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한 성결의 삶

미국에서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저희는 많은 것을 깨우치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식사하시는 날보다 금식하는 날이 더 많으셨고 주무시는 날보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날들이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얼마나 영혼들을 사랑했는지 자문하며 통

회자복을 했지요. 그러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 점점 깊어져갔고 어렴풋이 알고 있던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망이 구체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하나는 선교 사역의 방향이 인본주의적 교회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가장 먼저 자신의 성결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결을 이뤘을 때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경적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된다는 것이었지요.

오래 전부터 저희는 인생의 나머지 삶을 세계 선교에 드리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은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감동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교하기에 앞서 먼저 마음의 성결을 이루는 것이 선교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지요.

결국 저희는 안식년을 맞아 만민중앙교회가 있는 한국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며 성결을 이뤄야겠다는 결단을 했고, 2015년 2월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만민중앙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로 영성을 회복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조차 잃어버린 요즘 교회와는 달리 만민중앙교회는 경건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풍성히 나타나는 가장 성경적인 곳입니다. 저희는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닦고 싶고 따르고 싶은 인격과 영성을 소유하신 참 목자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매우 행복합니다. 세심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십자가의 도

57개 언어로 출간된 전 세계인의 필독서!

사람은 어떻게 창조됐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구세주인가?

전 세계 무수한 영혼을
깨우는 감동의 메시지!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참사랑

urimbooks.com URIM BOOKS 문의 02-837-7632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백성 5/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동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영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1795-1099 ● 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양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길 17, 2층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동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도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안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도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안로 22, 연성빌딩 5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8927-2073 ● 경인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7133-9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탈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우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대로 112, 5층 ☎010-7133-9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
|---|---|--|--|---|